

[종합]

서울 땅값 63% 오를때 광주 6% 올랐다

10년 동안 전국서 가장 낮게 상승... 전남 16.22%↑ 전국 평균 41.2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지난 10년간 광주지역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호남 땅값은 조금 오른 반면 수도권·충청권·강원·제주권의 지가는 큰 폭으로 올랐으며 참여정부 시절 지가 상승폭(25.20%)이 국민의 정부 때(12.79%)의 2배나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7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10년간 광주지역 지가 상승률은 6.01%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전남의 지가상승률도 16.22%(전국 10위)로 전국 평균 상승률 41.21%의 절반도 안 됐다.

영남지역의 지가상승률은 부산(12.13%), 울산(13.24%), 경북(14.23%) 등이었다.

반면, 서울의 지가상승률이 63.35%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57.82%), 충남(47.18%), 인천(46.27%), 충북(29.67%), 제주(28.08%), 대전(25.57%), 강원(19.89%)이 뒤를 이어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의 땅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2003년 10월~2008년 7월) 하에서 광주·전남지역 땅은 더욱 하락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광주 땅값은 6.14% 올라 전국 최하위, 전남 땅값은 8.48% 상승해 바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땅값은 25.20% 올랐으며 역시 서울의 지가상승률이 37.34%로 최고였다. 이어 충남이 35.59%, 경기도가 29.63% 각각 올랐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청지역의 지가가 급등했으며 각종 토지보상비가 풀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지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정부(1998년 7월~2003년 9월) 시절 전남지역 땅값은 전국에서 7번째로 높게 올라 어느 정도 수혜를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전남지역 지가상승률은 7.14%로 전국 평균 12.79%에 못 미쳤으나 수도권·충청권·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경기도 땅값이 가장 높은 21.75% 올랐으며 서울(18.94%), 제주도(16.46%), 인천(15.51%), 충북(10.25%), 충남(8.5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지역 땅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 기간 광주의 지가하락률은 0.12%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하는 기록을 남겼다.



복장으로 본 軍 변천사
29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리허설에서 군의 변천사 복장을 한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① 광복군, ② 국군창설, ③ 6·25 참전, ④ 현대의 복장이다. /연합뉴스

한나라, 종부세 9억案 수용

野, 강력 반발... 국회 정면 충돌 예고

한나라당은 29일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일단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운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종

부세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부세 완화로 인한 재산세 인상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재정도 줄지 않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그

대로 당론으로 확정해 끝까지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종부세 입법예고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의 개혁위원장과 당원, 당직자들이 종부세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반대운동에 나서야 한다. 정기국회와 정당활동을 통해 한나라당과 본격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국정감사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보성 녹차 역사 '名茶' 품평대회 금상 영예

보성 녹차가 '제 7회 국제 명차 품평 한국대회 및 가야 차 문화제'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경남 김해시와 WTU(World Tea Union=세계 차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영남조합법인 보성제과와 보성 윤림녹차가 출품한 녹차가 금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또 보성 북재대원, 보성 신옥로 제과, 청심다원, 은곡다원 제품도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

농산물 가공식품에도 원산지 표시 대폭 강화

특정원료에 대해서만 국적을 포함한 원산지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퀴말해 성분 비중이 50%에 못 미치고 비중 순위 1~2위에도 들지 않으면 원료로 사용된 수입 농산물의 생산지 국적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특정 원료의 수입 대상국이 최근 3년내 연평균 3개 이상 또는 최근 1년동안 3개 이상 빈번하게 바뀐 경우 국제적 국적이 아닌 단순 '수입산' 표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멜라민 사태로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연합뉴스

빛의 만평 - 김중두



정부, '해경 사망' 中 대사에 유감 표명

정부는 29일 한국의 수역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우리 해경경찰관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 닝푸쿠이(寧福魁)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관련기사 7면>

외교부 당국자는 "조태영 동북아 국장이 오늘 오후 닝 대사를 초청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가 향후 중국 어선의 한국 수역내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남도-이스라엘 수출 협력 나섰다

도 투자유치단, 국제협력단·기업 등과 잇단 MOU

전남도가 이스라엘 기관 및 기업과 잇따라 MOU(양해각서)를 체결, 수출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 강화의 길을 열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도 투자유치단은 유럽 순방 이틀째인 28일 이스라엘 수출 및 국제협력단(IEIC)과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IEIC 대표와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IEIC는 1958년 설립된 민·관 합작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산행 안내 광고는 18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골프회원증 No. J01500617
광주 C.C
송영미
삼기 회원증(大小)을 분실 공고함.

부동산담보필요하신분
◆ 아파트 분양가 65%~75% 매매
◆ 전액 융자 가능
◆ 투자가치 최고
◆ 창업자·직장인 환영
☎ 010-2605-1399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택지 및 산업지역 토지

전문

<신속처리>
【토지중개】
▶수완지구 택지 및 산업지역 최대 불량 확보

【아파트 중개】
▶우미, 모아, 현진, 코오롱, 대주 등 분양권 물건 최대 확보

【공장】
▶전남 합평군 나산면 국도점
대지(공장지) : 1030 건물 : 320평

정직한 중개문화를 선도하는
월드공인중개사무소
☎ 062) 952-0047, 954-0031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시험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회사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제출공고)

신원이앤씨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새원리가 (이하 "을"이라 함)는 상기 2008년 9월 30일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가공시일 영입부담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을"을 각각 분할하여 "을"은 존속하며, 산업 830250 9 제1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이 회사 분할합병이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2개월이 지난 후는 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 익일 이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갑 : 신원이앤씨주식회사
소재지: 전남보성군 화개읍 화개리 149-1
대표이사: 최원일

을 : 주식회사 새원리
소재지: 전남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840-2
대표이사: 배용조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새원리(이하 "갑")와 주식회사 신원리(이하 "을")는 2008년 9월 29일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가공시일 영입부담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을"을 각각 분할하여 "을"은 존속하며, 산업 830250 9 제1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이 회사 분할합병이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2개월이 지난 후는 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 익일 이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갑 : 신원이앤씨주식회사
소재지: 전남보성군 화개읍 화개리 149-1
대표이사: 최원일

을 : 주식회사 새원리
소재지: 전남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840-2
대표이사: 배용조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공고)

이테크 주식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전진사(이하 "을")는 2008. 9. 29 각 주주총회에서 (갑)은 그 영업의 일부(전기공사 사업 부문)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전액 인수하여 "을"은 존속하며, 산업 830250 9 제1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이 회사 분할합병이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갑 : 이테크 주식회사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동성로 348-7
대표이사: 홍성국

을 : 주식회사 전진사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동성로 379-3
대표이사: 임우진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최동진(470218-1024629)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나민650

공고인: 문숙현, 최승민, 최영민
한정승인수리일: 2008. 9. 23
공고기간: 2008. 09. 30 ~ 2008. 11. 29
연락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55-4 문숙현 (062-521-9999)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임재영(420814-1654912)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나민688

공고인: 이성희, 임민정, 임희선, 임현지, 임은창
한정승인수리일: 2007. 5. 16
공고기간: 2008. 09. 30 ~ 2008. 11. 29
연락처: 광주 남구 평안동 부림로 1002호 이성희 (062-676-4915)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구상전력(이하 "갑")과 주식회사 선양건설(이하 "을")은 2008년 9월 29일 각자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결과,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본 공고 제정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과 주주명부 가진 주주들은 주주명부를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9일

"갑" 주식회사 구상전력
광진동 경진동 서삼로 979-3
대표이사 임우진

"을" 주식회사 선양건설
광주 북구 문흥동 1001-10
광명대표이사 이효중
광명대표이사 이경제